

제16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공동선언문

1. 제16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개요

제16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이 2023년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본 포럼에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 일본 경제산업성 우시아마 도모히로 대신관방심의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관광부 마오무양 산업발전국 국장 및 3국의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이 주최국으로서 의장을 맡았다.

본 포럼에서는 3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근의 디지털 기술 진전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과의 시너지를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와 IP가 가진 힘을 높여 고객 체험의 가치 향상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도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콘텐츠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3국은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교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본 포럼이 3국 간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의 정보 교류와 창의적인 협력 기회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향후에도 3국은 본 포럼을 교대로 지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 3국의 디지털 기술이 열어가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협력 강화

3국은 세계의 콘텐츠 시장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며, 특히 디지털 콘텐츠가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임을 확인하고, 본 포럼에서 특히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각국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지원책과 최신 동향, 협업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3국은 앞으로도 기업 간 교류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창작자 및 제작자, 디지털 기술 개발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부 간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및 산업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3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 차기 포럼에 대해

3국은 제17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을 중화인민공화국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데 합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포럼을 개최함에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적극 협조하며 관련 정부기관 및 문화 콘텐츠 산업계가 포럼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본 공동선언문은 2023년 12월 7일 제16회 포럼에서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채택되었으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된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일본 경제산업성	중화인민공화국 문화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국장	대신관방심의관	경제발전국 국장
윤양수	우시야마 도모히로	먀오무양